

유럽에서는,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흙'을 표현 재료로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다양성'에 대해 한결같이 이야기한다. 작품 제작을 위해 선택된 재료와 두 손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도자예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큰 매력 중의 하나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흙의 물성을 깊이 체험하여 매료된 예술가들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흙을 연결시키거나 흙의 물성을 담아 새로운 예술세계를 창조해 내고 있다.

2024년부터 브뤼셀에서 최초로 개최된 <Ceramic Brussels>에서 필자는 이런 경향을 한 공간에서 강하게 느껴볼 수 있었다. (월간 도예 Vol. 336, Vol. 348 참고)

벨기에의 도시, 브뤼게 Brugges는 2025년의 예술가로 <Ceramic Brussels 2024>에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Joke Raes를 선정하였고, 도시 내의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에 전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뤼게 문화센터에서는 Raes의 개인전이 포함된, 《5-V: Verschijn, Verdwin, Verschuif, Verbind, Verhaal (드러나고, 사라지고, 움직이고, 연결하고, 이야기하다)》라는 주제의 그룹전을 기획하여 도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도시, 겐트 Gent에서는 Raes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작품 전체를 보여주는 개인전이 진행되었고, 전시 도록이 출판되었다. 필자는 전시장에서 그리고 브뤼게의 한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 도자예술과 조형예술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Joke Raes

1983년 브뤼게에서 태어난 작가는 겐트대학에서 순수실험 미술을, Sint-Lucas 대학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하였고, 석사 학위 후에 HISK-Higher Institute for Fine Arts에서 시각예술 연구를 이어갔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회의 개인전을 벨기에, 독일, 일본에서 개최하였고, 수많은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벨기에, 이집트, 페루,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 자리 잡은 예술가 레지던시의 초청을 받아 참여하며, 그의 생각과 경험을 다양한 재료로 형

해외 WORLD

벨기에의 젊은 예술가 Joke Raes 흙의 물성이 드러나는 조형 예술

@joke_raes
jokeraes.org
youtube.com/@jokeraes6917

상화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드로잉, 수채화, 도자, 조각, 설치 그리고 퍼포먼스 등의 분야에서 주제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여 독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이, 연필, 물감, 흙, Epoxy, 산업 폐기물 그리고 자연의 산물 등은 그의 상상력이 시각화되도록 뒷받침해 준다. 그의 작품들은 대담하고, 즉흥적으로 다가오지만, 정밀하고 섬세한 표현을 동시에 담고 있다.

자연에 대한 호기심

Ernst Haeckel(1834-1919)은 독일의 해양 생물학자, 자연학자,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비로운 형상을 섬세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예술가이다. Raes는 그가 과학자로서, 예술가로서 표현한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공감하는 동시에 그를 숭상한다. 해양과 해양생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Raes는 자연을 이루고 있는 물과 흙의 유동성을 다양한 재료에 담아 시각화하여 부드럽지만, 힘차게 다가오는 작품 세계를 펼친다.

Raes는 타고난 성향인 자연에 대한 호기심,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탁월한 섬세함을 조화시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급박한 현실의 기후 문제, 사회적 불평등, 팬데믹에 관심을 가지며, 인류 미래의 불안정성이나 불완전성을 선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지구를 자체 조절 능력을 보유한 유기체로 보는 이론에 동의하며,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려는 본능을 가진 동물 중의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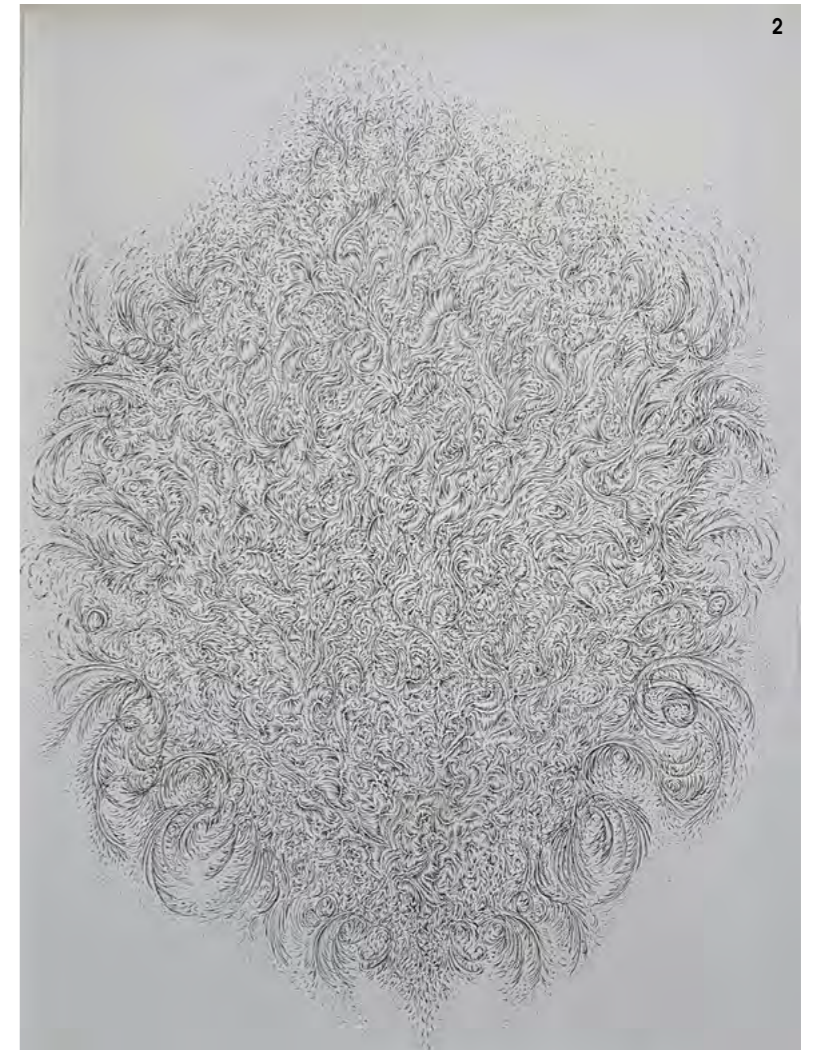
개인전-Vivid

2025년에 Raes는 열 번째의 개인전인



1 Joke Raes 「Slumbers Poem」 300×300×30cm | Ceramics, Ceramic Brussels 2024-Art prize | 2020-2024 ©이윤경

2 Drawing 「Portrait」 연필, 종이 | 2023 ©이윤경



《Vivid》를 Liedts-Meesen재단의 초청으로 겐트에서 개최하였다. 이 재단은 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여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은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그의 초기작품, 마스크x 시리즈, 드로잉 모음,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조형물 그리고 벽과 공간을 채운 도자 설치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작가의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전시장 입구에 새겨진 문구를 여기에 옮겨본다.

“전시 《Vivid》는 상상력의 무한함에 대한 찬가로 펼쳐진다. 자연 내의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리듬과 변형 안에서 자연 자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각의 형상들이 숨 쉬고, 꿈틀거리며 어떻게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지를 Raes는 자신의 작품에 담아 보여주려고 한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없는 우주, 모든 형태가 변형의 흔적이며, 상상력이 원동력으로 남아 있는 곳, 즉 무한하고 맥박이 뛰듯이 항상 움직이는 우주의 세계로 Vivid는 여러분을 초대한다. ‘Vivid’ (생생하고, 선명하며, 강렬하고, 다채로운)이라는 단어는 도록과 전시의 제목으로 동시에 선택되어, 기록과 실재라는 영역에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예술가의 통찰력과 실천 과정을 시적이며, 율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시 도록에는 다양한 작품 사진은 물론, 레지던시 참여 경험을 비롯한 작품 탄생의 배경과 제작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Drawing

Raes의 예술 철학을 표현하는 근본 재료는 물과 흙이다.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징적으로 그들의 물성을 담아낸다. 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생성되는 물과 흙이라는 재료를 작가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깊이 인식하기에, 반복, 재현, 연결 그리고 인내라는 제작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을 당연시한다. 이러한 제작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흐르고, 퍼져 나가고, 덧없이 사라지는 변형과 변환의 세계에서 미세하고,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그의 의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학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드로잉은 그의

예술 철학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시간이 있거나, 마음 상태가 불안할 때 그는 연필과 종이를 찾는다. 섬세한 곡선이 만나고 흘러지는 가운데, 물결치고 춤추는 듯한 패턴이 지면을 채운다. 경쾌와 불안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의 드로잉을 가만히 들여다볼수록, 미세한 선의 움직임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종이 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손의 율동을 상상하는 가운데, 부드럽고 유연한 물과 흙의 물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의 드로잉은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작품으로 거듭난다.

Mask x

2017년, Raes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EKWC European Ceramic Workcentre Oisterwijk (@ekwc)에 체류하며 본격적으로 흙작업을 시작하였다. 도자 마스크인 「Mask x」는 이 기간 중에 시작한 초상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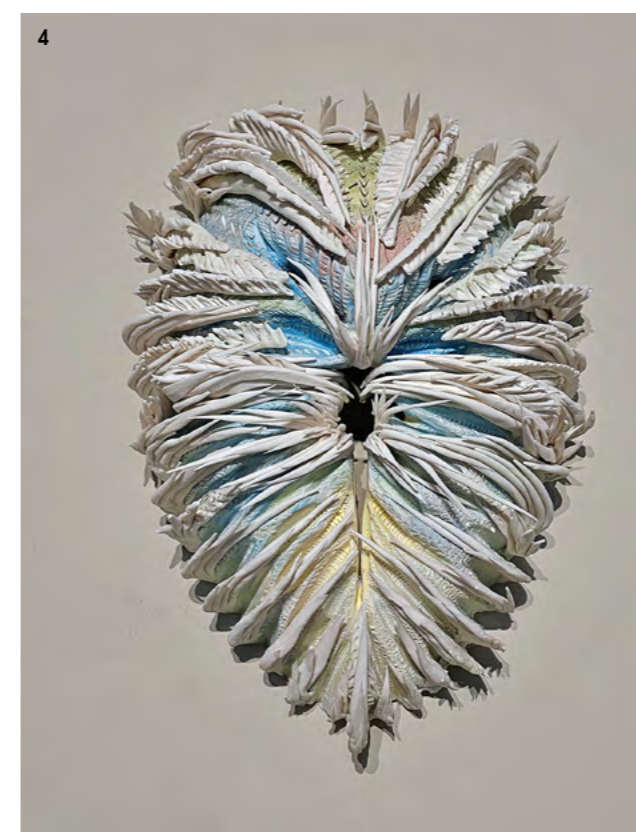


리즈로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 후에 참여했던 무대 예술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고, 초상에 대한 탐구, 즉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것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이다.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도구로서 상징되는 마스크라는 형태에 Raes는 인간 내면의 다양한 모습을 매혹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작업은 작가가 존중하는 자연의 무한한 상상력 즉, 자연의 분별없는 번식력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듯하다.

Raes는 ‘어떤 형상이든 가능하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마스크 제작을 시작하는데, ‘다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무엇’으로 인해 구체적인 형상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백자토 자체의 흰색과 은은한 파스텔 톤의 다채로운 색으로 구성된 마스크는, “이렇게 가늘고 얇은 흙조각을 어떻게

- 3 「Mask x」 27x19x16cm | 백자 | 2018 ©이윤경
- 4 「Mask x」 52x43x12cm | 백자 | 2025 ©이윤경
- 5 「Mask x」 52x42.5x10cm | 백자 | 2025 ©이윤경
- 6 「Mask x」 55x50x23cm | 백자 | 2025 ©이윤경
- 7 「Mask x」 55x50x17cm | 백자 | 2025 ©이윤경



연결했을까”라는 제작기법에 대한 의문을 우선적으로 자아낸다. 점성이 풍부하지 않은 백자토가 미세하고, 유연해 보이는 흙조각으로 생성되고 연결되어, 형상화된 마스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는 흙의 물성을 깊이 체감한 Raes의 손과 자연의 흙이 혼연일체를 이루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고, 완벽한 기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자체적으로 관람자들과 소통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섬세한 조각들이 제시해 주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인식하게 되며, 관람자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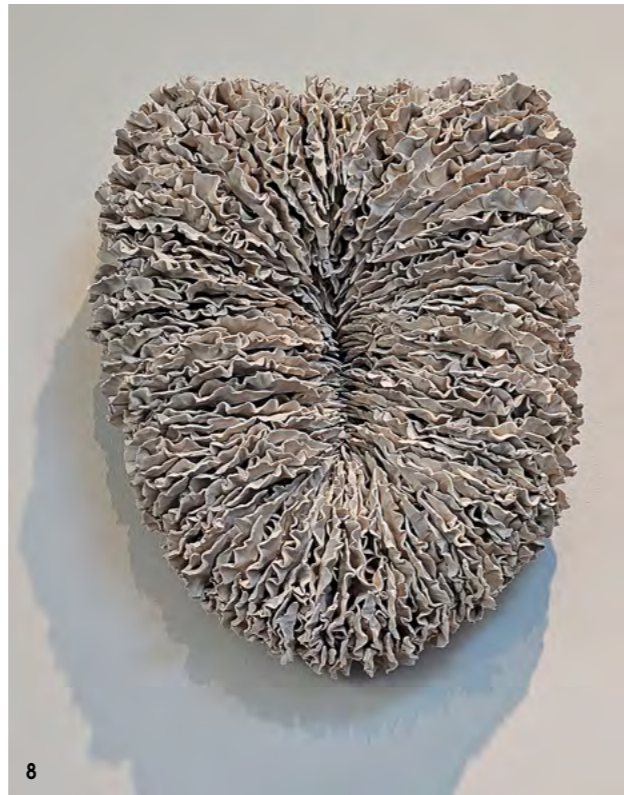
마스크 시리즈의 작품들은 제작, 소성 그리고 전시를 위한 운반 과정에서 거의 파손되지 않는다고 작가는 말한다.

도자 설치

벨기에 해안가 도시 Ostende에 위치한 왕실 휴양지에서 Raes는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Epoxy를 재료로 바다생물을 형상화한 듯한 거대한 규모의 조형물과 소, 중형 작품들을 정원과 건물 내부에서 보여주었는데, 이 전시는 2024년, 도자 설치 작품인 「Petrified Water」와 「Slumbers Poem」으로 Ceramic Brussels에서 수여한 젊은 작가상의 부상 중에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경험한 인상적인 상황이나 이미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도자로서 또는 다른 매체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의 개인전 《Vivid》에서는 수상 작품들을 재현하여 설치하였는데, 단순하게 표현된 크고 작은 수많은 조각들이 전체를 구성하는 두 작품은 미적 효과와 더불어 강한 에



8



9

너지를 발산한다. 거대한 벽면을 채우고 있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유약이 입혀진 도자 조각들은 작가가 의도하는 이야기가 퍼져 나가도록 서로 상생작용을 하며 관람자들의 시선을 끌 어당긴다.

위의 두 작품들이 설치된 마주 보는 두 벽면 사이의 공간에는 「Imaginaire Memorabilia」라는 제목의 2백여 개의 소품들이 두 줄로 나란히 전시대 위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해변을 산책하다 발견하는 조개껍질, 돌멩이 혹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변형된 표류물들을 연상 시켜준다. 색이 입혀진 백자토로 제작된 형상들은 가까이 다가가 보아야 그 섬세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게 표현되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작기법에 감탄하게 되고, 작가의 기본적인 예술 철학을 되새겨 보도록 일깨워준다.

Raes는 전시장의 규모나 주변이 자아내는 분위기에 따라 새롭게 설치할 작품을 구상하거나 이미 제작된 작은 형상들을 발전시켜 새로운 이야기로 발전시켜 공간을 채운다고 말한다.

다양한 재료

조형 예술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재료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하는 Raes는 자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위해 다양한 재료를 주저 없이 선택하여 표현한다. 시간과 장소는 그의 창작에 제한을 주지 않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그의 욕구를 위해 항상 존재하는 듯하다. 가장 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종이와 연필 그리고 한 덩이의 흙은 그의 집중력을 채워 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료인 산업폐기물을 둘러보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그는



10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동시에 환경에 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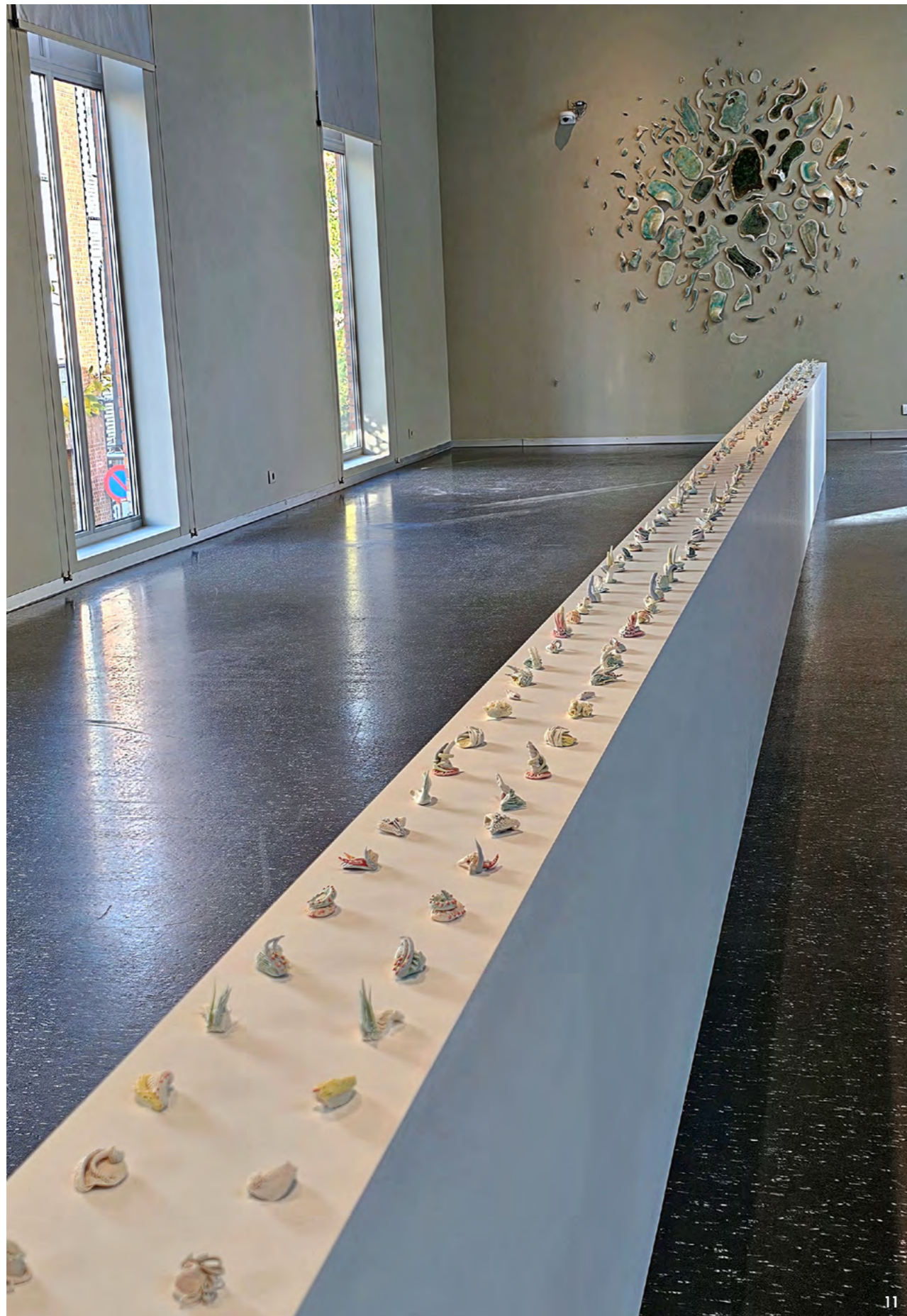
Raes가 선택한 산업폐기물 중의 하나인 열교환기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거쳐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한다. 길고, 좁고, 얇은 판조각이 나란히 촘촘하게 세워져 형성된 표면에 그는 금속도구를 사용하여 물결모양이나 휘몰아치는 듯한 선의 움직임을 새긴다. 판조각의 휘어짐의 정도에 따라 빛의 굴절로 일어나는 반사 효과는 섬유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금속의 날카로움을 담고 있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Epoxy, 섬유로 제작된 기다란 끈, 나무조각, 버들강아지, 일회용 고무장갑 등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는 그의 눈에 띄어 하나의 예술품으로 형상화된다.

8 「Fragile」 63×49×18cm | Ceramics | 2019 ©이윤경

9 「Japanese Maske」 27×19×16cm | 백자 | 2021 ©이윤경

10 「Wild Walk」 36×29×16cm | Japanese Porcelain | 2019 ©이윤경



11

예술가 Joke Raes

흙이라는 물질에 심취해 있는 Joke Raes는 도예가보다는 조형 예술가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흙의 물성은 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필자에게 일으켜 주었으며, “드로잉과 흙의 물성에서 얻은 유연하고 섬세한 감각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기 때문에 도예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즉흥성과 추진력은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만나 무한하게 확장되리라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얼마 전,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36인이 펼치는 그룹전 오프닝에서 Raes를 다시 만났다. 도자 도시인 Torhout의 도자박물관과 그 도시에 자리한 화랑 Stek에서 함께 기획한, 도예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다. 동료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시 기획과 그들의 작품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Raes의 한 면모를 이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작품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Raes와 작가들을 통해 예술의 세계에서 생성되는 소통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었다. 감사한 일이다. 📷

글. 이윤경 독일 통신원

11 설치4 「Petrified Water」 100×100×2cm | 백자 | 2024

「Memorabilia of a wild walk」 10×10×5cm | 200 pieces, 백자 | 2025 ©이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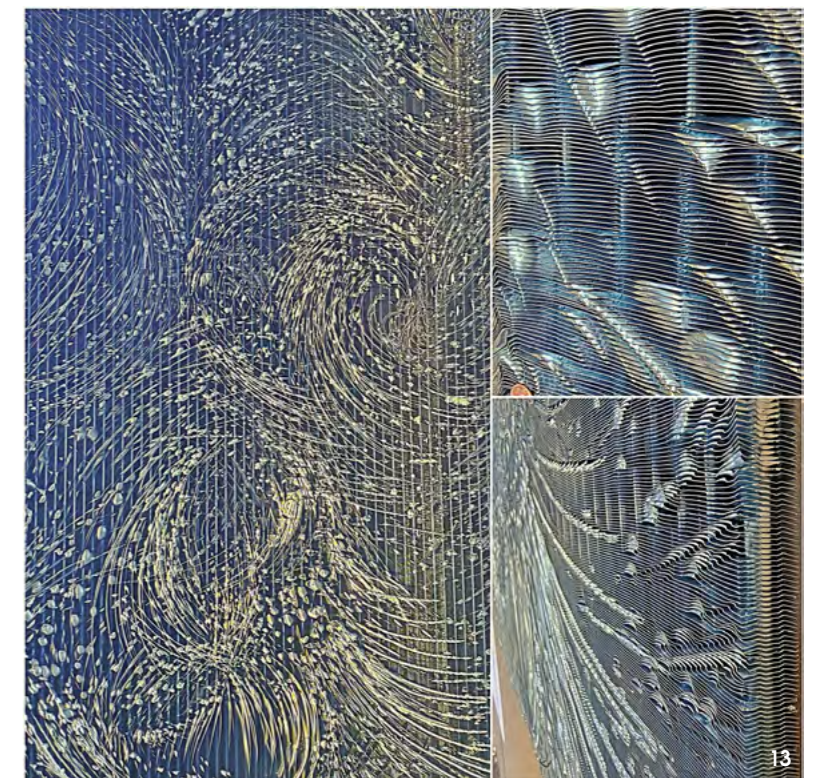
12 「Portrait of Golden Waves」 39×30×3cm | Ceramics | 2025 ©이윤경

13 「Dancing waves」 200×100cm | Aluminium, copper | 2025 ©이윤경

* 이 글은 Joke Raes와의 인터뷰와 도록 「Vivid」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2



13